佛教彙報

孤雲寺住持 選擧顚末

大本山慶北義城郡孤雲寺住持李萬愚氏는本年五月二十八日이第五世任期滿了가됨으로當本末寺法第十八條에依하야三朔前期인即二月十二日에選擧式을行하야同李氏가多點으로被選됨에此를當局에申請하엿든바마침孤雲本末寺法改正認可가三月三日附로發表되고써따前記申請은寺法改正認可前選擧만理由下에慶北道廳으로부터四月二十五日此가反戻된바다시六月十九日로本末總會를開催하고被選擧權이有한者千光祿李雨坡趙彰海朴夏隱權尙衍李萬愚等諸氏를揭示한後三十四人의選擧權이有한者로부터投票公選한結果李氏는二十二點으로李雨坡氏는十點으로千光祿權尙衍雨氏는各一點으로趙朴雨氏는各空點으로開票된바亦是多點에依하야李萬愚氏가被選되엿다더라 (孤雲)

楡岾寺住持選擧

去六月三十日上午八時에本山楡岾寺水月堂內에서本山楡岾寺第六世住持選擧總會를開催하야議長은現本山住持金一雲氏로定하고住持選擧投票有權者를審査하기爲하야審査委員五人(金坦月 玄寶光 鄭大庵 權蓮林 朴一龍)을選定하야僧籍及履歷書에依하야嚴正히審査한結果有權者四十七人을選拔하야無記名投票로住持를選擧한바

李混惺 三十八點
金一雲 三點
金坦月 一點
嚴永濟 一點
無效 四點

多點에依하야李混惺氏가被選되엿다더라(楡岾)

釋王寺第十世 住持選擧

關北大本山安邊郡釋王寺에서는去七月五日에本山住持及僧侶와末山住持一同이大雄殿內에集合하야第十世住持를選擧하엿는데

一、出席員은四十六人
一、議長選擧는崔健雲氏로
一、有權者審査
一、事務取扱選擧는李幻海氏(四十三點)으로
一、住持選擧는張河應氏(三十三點)으로
一、其他事項에는別事件업시閉會되엿더라(釋王)

楡岾本末臨時總會

前項과如히楡岾寺住持選擧總會는去六月三十日上午에終了되고下午一時에는更히本末總會를開催하야

一、緣故林讓與事件
緣故林讓與願은本山을經由하야道廳에進達할것
一、僧籍에干한件

域外消息

◎泰西의佛敎硏究傾向

▲伊太利國立大學에 佛敎中心의東洋講座

近時歐米各國에서東洋文化ㅡ特히佛敎硏究의風潮가盛旺하야가는것은 顯明하는바에지만 敎國伊太利는 뭇소리曾相는 伊太利國立大學에 佛敎를中心으로한 東洋學科를開設하기로하고 東洋學科의擔任講師를 日本으로부터招聘하기로되엿다더라。(中外)

▲猶太에서도佛敎硏究

目下猶太에留學하고잇는 東京駒澤大學의 兒玉德重敎授의近信에依하면 目下猶太에는 二十三의國立大學이잇는데 此等國立大學에는 各部佛敎를中心으로한 東洋學科를設한다고하더라。(中外)

▲勞農露國의首都 佛敎學士院을創設

最近勞農露國의首都 페트로그라드에서 佛敎硏究의特殊한 機關이開設된다고 「美國佛敎」誌上에記載되엿다이機關은學士院이라할만한格式으로 世界中의唯一로 認할것인데 그리고 그內容은四部門即日本、印度、支那及蒙古의四部門으로分하엿는데 四部의部長에는 四人의有數한梵語學者를雇聘하고또 一人式四國으로부터學者를招聘한다는데 勞農政府는創設費를支出하는外에 그將來維持에對하야도支出하기로되엿다더라。(中外)

▲아푸리카南端의 佛敎主義者

아푸리카 모랑조랑, 뽀러도리야敎育局에서 勸務하는 부라넌뚜, 뽀러氏로부터 상구이조로社에 寄信이來하엿는바「龍中의鳥」라고題한一部의長詩가記錄되엿는데 完全한 自由는 解脫로因하야得한다는思想을 叫하엿다。 뽀氏는其地의오ㅣ바호ㅡ도佛敎會의會員인데 佛敎主義로 土人을 敎化하는奇奇한 人物이라더라。(中外)

▲最近에生龍發見

「少所見 多所怪 見鼈鼈 謂馬鼈背」라는 세속으로近世科學者들은 龍이라는實物이업